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진새골 시절

2 년 동안의 서울 지구병원 근무를 마치고 제대할 시점이 다가오자 우리 집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3 년 동안 사택에만 있었으니 제대는 바로 '살 집이 없어진다'는 슬픈 사실로 연결되는 셈이었다. 그 당시 춘천에 19 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미 받은 전세금을 3 년 동안 다 썼으니 집을 팔아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부채를 청산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아내는 기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내게 토로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때 주님이 마음 판에 새겨 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었다. 확고하게 심어진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대목에다가 '어디서 살까'를 대입시켰더니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어찌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을 위해 살 집을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이런 걱정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CCC 선배인 주수일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시 우리는 그분이 주도하시는 가정 세미나에 동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분들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의 삼촌이신 최선수 장로님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그분의 별장이 경기도 광주의 진새골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가족이 맘에 들면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고 했다.

아내와 같이 달려가 본 진새골의 별장은 자그마치 3 만 평이나 되는 땅에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광활한 곳이었다. 흐르는 계곡의 물은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고 잔디밭과 오솔길, 약수터, 구름다리가 예술적인 단층집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부부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주변에 인가가 없고 산중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별장에서는 사람이 10 일 이상 살았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주님의 배려였다. 우리의 대답은 무조건 'Yes'였다.

그야말로 우리 가족은 '초원의 집'에 사는 '월튼네 사람들'이 되었다. 마침 동네 청년이 맡긴 독일산 도벨만(센과 벤) 두 마리가 가족으로 합세하면서 우리 가족은 일곱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이곳을 진리재(眞理載)라고 이름 붙였고, 이른바 우리의 진새골 시대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나는 대학 교수로 복귀해 서울과 춘천과 진새골을 오가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고 아이들은 근처의 도곡 초등학교에 다녔다. 걸어서 20 분 정도를 내려가야 버스를 타는 도로가 나왔는데 등교시간이 거의 40~50 분씩 걸렸다. 하교시 귀가할 때는 오르막길이라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매일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안쓰러웠다.

그러나 매일 탐험을 하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며, 특히 추운 겨울철에 자주 눈이 오고 항상 빙판길인 산길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힘차게 다니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이었다. 항상 아버지는 '아이들은 함부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하셨는데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가끔 막내아들 의찬이는 버스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먹고는 1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집에 오기도 하는 등 에피소드가 많았다.

그러한 축복의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다. 운택한 푸르름의 시간이 흐른 지 3 개월이 지날 무렵 이었다. 10 년 전부터 팔려고 했으나 마땅한 임자가 없던 이 별장이 팔린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때는 나도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는 행복이 벌써 몇 번째 또 다른 방랑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 가족은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때는 절로 기도가 나왔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새벽마다 명일동의 명성 교회를 찾아 주님께 기도하며 사정을 아뢰었다. 그 당시가 일생 중에 새벽 기도의 진수를 가장 깊이 체험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다. 결국 그 집을 파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두서너 달 뒤에는 이사를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랫집에서 전화가 왔다. "황 박사님이세요? 저는 아래 별장 주인입니다. 남편에게서 황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저희 별장을 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그 아랫집은 당시 대우중공업 운영석 회장의 집으로 2 층이었고 3 천 평쯤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별장이었다. 나는 가끔 산책을 하면서 '지금 있는 별장도 좋지만 저런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막연한 열망이 이렇게 성취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하실 이'인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 감격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다보면 미처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주시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고 이후 2 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최상의 전원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2 백 여 평이나 되는 넓은 잔디밭과 시냇가, 주변의 아름드리 소나무 숲에서 우리는 주말마다 서복후 형제·자매들, 교회 식구들, 호도애 가족들, 라브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열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만끽했다.

진새골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다. 하루는 집에 귀가해보니 벤(도벨만)이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신한 적이 없는데 새끼를 낳았다 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짐승의 새끼 네 마리를 물어온 것이었다. 색이 검은 것이 공새끼 같기도 하고 오소리, 두더지, 너구리의 새끼 같기도 했다. 읍내 수의사를 불러와 확인해보니 공새끼 라는 것이다.

다음날 기자들이 몰려왔고 당시 용인자연농원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조사 결과 그것은 너구리의 새끼로 확인되었고 기자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으며 우리는 너구리 새끼 네 마리의 양육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모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새끼들은 배가 고파 밤새 울었고 우리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새끼 세 마리는 그만 죽고 말았다. 남은 한 마리는 아이들이 다니던 도곡 초등학교에 기증했다.

그 집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집이라 뱀이 가끔 나타나기도 했는데 한번은 뱀이 현관 앞과 마당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배회하는 바람에 아내가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또 아내는 넓은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관리하고 그 큰집을 청소하느라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다가 초기 디스크 증상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또한 그 집은 당시 방글라데시의 크리스천 지도자로 한국 선교사들을 도와주던 형제가 6 개월 동안 같이 지내며 면역 요법으로 악성 피부병을 치료하던 섬김의 현장이기도 했다.

또한 '진새골 시절' 하면 떠오르는 의현이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

성경적 자녀관

진새골에 살 때였다. 당시 의현이는 전형적인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번은 의현이의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찾아 오셨다. 그것도 혼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반 아이들 여러 명을 데리고 놀러 오셨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함성을 지르며 축구를 했고, 선생님은 조용히 면담을 요청하셨다. 의현이에 대한 선생님의 지적은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었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데 있었다.

문제의 요지는 의현이가 학교에서 말을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 수업 도중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도 대답조차 안 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런 의현이가 혹시 자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할 정도였고 사태가 심각하다 싶어 이렇게 부모를 찾아 온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태연했다. 아이가 집에서 하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비정상적인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선생님을 안심시키며 위로했다.

"선생님.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대신 사색하는 습관이 있었지요. 저는 아이마다 독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주위에서 긍정적으로 봐주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현이도 저와 비슷한 것 같군요. 아마도 때가 되면 의현이도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에 의현이의 담임선생님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안심이 되는 듯 반 아이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의현이는 학교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즐기는 아이로 탈바꿈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그때 의현이를 불러 왜 학교에서는 말이 없느냐고 야단쳤더라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의현이는 자기 나름대로 학교에서 병어리가 뿜으로써 얻는 이득과 불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고 불이익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부모의 개입 없이 아이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아이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 의현이를 다이내믹한 인격체로 보았기에 해결이 빨랐다고 믿는다.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

크리스천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경적 패러다임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녀를 키우려면 성경적인 자녀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탁을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는 한, 병든 자신의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 엄밀히 말해서 내게 위탁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이지 나의 복사판이 아니다.

자녀를 전적인 타인으로 빨리 인식할수록 훌륭한 부모, 훌륭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겨레가 사는 길이다.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창조적인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결하라!

암환자와 인격 의학

그 질긴 인연의 시작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나는 섭리적 만남이라고 부른다. 전인 건강에 대한 탐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무튼 암과의 전쟁은 진새골 시절에 이루어졌다.

진새골 시절 독일과 스위스를 오가며 암환자에 대한 면역 요법 연구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92년 여름, 진부령의 알프스 리조트에서 개최된 한 수양회에서 만난 건국대 김 박사의 소개로 스위스에 희한한 항암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상당한 임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치료법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특수한 그룹의 의사들만이 시행하기 때문이며 아무에게나 쉽게 전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치료법의 국내 도입 문제와 국내 개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대표단에 나도 끼게 되었고 그 해 9월, 최초의 독일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암과 성인병 예방 연구에 전력하던 내가 암의 면역 요법과 전인 치료라는 새로운 의학의 영역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암의 완치'와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로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당시 방문했던 병원은 스위스의 루카스 병원, 독일의 프리덴바일러 병원, 외셀브론 병원이었다. 우선 스위스 바젤 부근의 소도시 알레스하임에 위치하고 있는 루카스 병원은 '희한한 항암제'인 미슬토 요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요법을 최초로 시작한 병원이었다. 특히 그 병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히스키아 연구소의 방문도 인상적이었다.

이후 두 차례 이상 스위스의 전형적인 마을인 알레스하임의 루카스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탐험 정신으로 설레는 가슴을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 요법은 순수한 자연 요법으로 미슬토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사제로 개발한 것이었으며, 이 치료법의 역사는 60년이나 된다고 했다.

이 요법은 '안스로포소피(Anthroposophy)'라는 인간 중심의 전인 치료를 하는 의사들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400 군데의 병·의원에서 시행되어 학회 때마다 놀라운 치료 효과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이 요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의 FDA 가 객관적인 임상 효과와 그 과학성을 인정해 캘리포니아의 한 의과대학을 지명해 이 요법을 시행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셀브론 병원은 헤르만 헤세의 고향 카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폴스하임이라는 도시의 근교에 있었다. 밀밭과 사과밭이 끝없이 펼쳐진 외셀브론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병원 역시 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치료법의 시행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들인 디자인과 정교한 치유 환경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하였다.

가장 큰 충격은 프리덴바일러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하고부터였다. 대부분이 말기 암환자인 그들은 한마디로 '어라이브(alive)'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생동감이 넘치고 있었다.

프리덴바일러는 남부 독일의 슈발츠발트(검은 숲)에 있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의 휴양지였다. 이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암센터는 독일 전역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프리덴바일러 역시 이후 세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받은 감동이 새로웠지만, 특히 '93년 겨울 한 달 동안 이 병원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병원장이자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였던 란츠베르거 박사에게 고독과 싸우며 미술도 요법을 연수받던 시절의 추억은 회고할수록 새롭기만 하다.

이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 면역 요법뿐 아니라 식이 요법, 영양 요법, 산소 요법, 온열 요법, 물리 치료, 목욕 요법, 심리 요법, 이미지 요법, 예술 요법, 운동 요법, 산소 요법 등을 병행하여 환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도 같이 병행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날마다 최상의 삶을 누리는 희망찬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암환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우리 환자들은 암의 세력에 압도되어 '죽어가는' 반면 그들은 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우선 치료 환경이 달랐고 치료하는 의료진의 철학이 달랐다. 우리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는 대개의 경우 암환자가 죽을 것이라고 믿고 치료한다. 한마디로 암병동은 죽음의 병동이다. 암환자의 병실은 죽음의 무드가 지배하고 있다.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독한 항암제와 방사선의 무차별 폭격을 받고 기진맥진해진 그들 중에 과연 살아남을 환자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해서 암이 완치된다면 환자들도 즐거움으로 고통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1%의 가능성이라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물론 우리의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술은 잘했는데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있듯 문제는 결과이다.

이 경우 암은 줄거나 멈추지만 몸은 암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 지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재발되었을 때 그것이 처음 발생한 암 자체의 재발인지 최대의 발암물질인 방사선과 항암제에 의한 새로운 암의 발생인지를 철저하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입원 기간 중, 암을 이기는 방법과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마음속의 분노를 잠재우는 작업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일종의 인생 훈련소의 기능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치유 환경, 자연식 위주의 맛있는 식사, 친구처럼 다정한 의료진과 더불어 목욕과 운동, 체조와 마사지, 공작 시간을 연상케 하는 작업과 그림 그리기 등등 환자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병원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었다. 현대 의학의 합리적인 선택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전인 치료 의학의 실체를 만끽할 수 있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학파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그들의 열린 마음과 용기가 부러울 뿐이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했던 것은 이 면역 요법과 더불어 전인 치료 의학을 향한 '배움의 열망' 때문이었다. 특히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독일 전역을 다니며 이 요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 다녔던 지난날의 열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재까지도 연결된 이 열정이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띄워 본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들을 싸매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이들에게 새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암환자에 대한 애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클리닉으로 연결되어 내가 해야 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환자를 만나는 것을 선교 차원이나 전인 치유 인격의학의 한 대상으로만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암환자를 섬기는 일 그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와 창조적인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주변을 배회할 필요도 없다. 경영학 용어 중 'Selection & Concentration' 이라는 전략이 있듯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환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서 다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적 측면에서 나는, 암이라는 '인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질병'을 선택하여 그 정복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전략적 삶을 통해 승부를 걸고 싶은 열망이 샘솟는다. 나는 암환자를 보면서 영혼 구원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병원이라는 생각을 더욱 절실히 한다.

어떠한 무신론자도 암에 걸리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항상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환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면 그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기도가 끝날 무렵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암을 계기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유럽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암 센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전인 치유 인격학의 관점에서 기존의 의학적 치료에다 면역 요법, 식이 요법, 자연 요법, 심리 요법, 예술 요법, 작업 요법, 향기 요법, 기도 요법 등을 통합한 총체적 치료를 시행한다면 획기적인 치료 효과는 물론 암의 재발 방지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변함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암치료에 있어서 우리의 메이커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영적 회복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에 우선한다. 암의 치료 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사랑의 암 센터에 대한 집착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 있는 암치료 재활 센터들은 대개 경치가 좋은 대도시 외곽 지역에 있다.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암을 치료하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든다.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한다.

암환자들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 암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쓴 글을 소개한다.

오늘도 나는 한 자매의 손을 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흐르고... 그녀는 유방암에 걸려 재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30 대 초반의 가정 주부였다. 비교적 초기라 완치의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그녀의 신앙과 인격의 잔잔함을 휘저을 때마다 맥이 풀리는 모양이다.

지난 번 우연하게 참석했던 전인 치유 학교에서 용서하는 법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고 고백하는 그녀. 그래도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실 '재발이냐 아니냐'는 명백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그녀가 꼭 완치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직업 전선에서 암환자의 재발을 막는 일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아울러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끝까지 소망을 불어넣는 일에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내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 또한 극한 상황이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는 환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의 의미를 깨달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만약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괴로움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섭리가 확실할수록, 그 의미가 명백할수록, 그는 투병 의지를 불태울 뿐 아니라 소망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인생을 보게 된다.

5 월 어느 날이던가. 1 년 전 수술을 받은 후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던 위암 환자가 암이 재발되어 울산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대단히 초조한 표정이었다. 암환자들은 대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직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그 환자는 간과 췌장에까지 암이 전이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울산의 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와 그의 부인은 그가 이미 재발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고 '환자 당사자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사실을 선고하는 일'은 결국 나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참으로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 재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의 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운명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있었다. 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재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찬스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응은 정 반대로 나타났다.

그의 체중은 현저하게 감소해 갔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변해버렸다. 축 늘어진 어깨에 절망적인 눈빛, 나는 것처럼 참담한 인간의 표정을 본 적이 없다. 할딱할딱 뛰는 가슴과 가느다란 숨소리. 하나님으로도, 기도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내가 위로할 단어가 없었다.

마치 하나의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치료의 가능성에만 관심을 두며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려고 전전긍긍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이었다.

물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려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의 절대 사랑을 믿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름심이 곧 삶의 욕망까지 포함된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신앙의 본질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우리는 다만 반응할 뿐이다. 죽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것도 찬양거리요, 간증거리요, 감사거리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반응할 순 없다. 이것이 날마다 벌어지는 진로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이다.

꿈은 크게, 생각은 고상하게, 삶은 단순하게

대학 병원과의 싸움

내가 암환자를 치료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학 병원과의 싸움이었다. 오늘날 우리 의료인들에게는 겸손한 자세와 학문적으로 열린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 자기가 공부한 것,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이 전부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로 미국 의학만을 받아들였던 의료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던 거부 반응, 그들이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해 의아해 했던 미슬토 면역 요법은 이제 서울대병원 등 국내 우수한 대학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으로 채택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나는 병원을 개원하기 전 대학 교수 시절부터 시도해왔던 미슬토 면역 요법과 전인 치유적 인격 의학이 놀라운 결실을 거두리라는 것을 확신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일한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나는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는 2 관 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노벨 평화상과 노벨 의학상을 다 움켜쥐겠다는 비전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감이 안 날 것이기에 1992 년이던가 북유럽 배낭여행 중 스웨덴 한림원과 노르웨이 의회 건물 앞에서 미리 사진을 찍어 두었던 추억이 있다.

앞으로 30 년 정도의 계획으로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세계화시켜 제 4 의 물결(성김과 나눔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현재 하고 있는 복합 면역 요법과 전인 치유 요법을 과학화시켜 암치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달성된다면 2 관 왕은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혹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게 추구는 하겠지만 결과에는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상(Prize)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더 크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키워주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그래서 '꿈은 크게, 생각은 고상하게, 삶은 단순하게(Great Vision/ High Thinking/ Simple living)'의 좌우명을 즐기게 추구할 생각이다. 목표 없이는 성취가 없고 꿈이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차세대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열망이다.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

결단의 순간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 장로님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날 하신 그분의 한마디 말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황 박사님도 센터를 가지셔야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권면으로 나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다. '그렇다! 이제는 베이스캠프를 가지고 집중적인 사역을 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사역이란 내가 그동안 강의로만 역설하던 전인 건강, 전인 치유를 실제로 이루어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를 그만 두고 병원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더욱이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위치인 의대 교수직을 그만두다니...

많은 가능성이 있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선택에는 고통이 따르고 포기의 결단을 해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직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일지도 모른다. 집중성의 차원에서는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 한 달란트의 강점은 집중성과 깊이이다. 다섯 달란트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비교적 스트레스를 안 받는 타입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결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신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춘천에서 강의를 마치고 대성리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북한강을 따라 밤늦은 시간 광주진새골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밤 11 시가 되면 지름길인 팔당댐이 문을 닫아 구리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나는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그런데 그만 깜빡 졸고 말았고, 충돌사고가 났다.

왼쪽은 북한 강 길의 낭떠러지요 오른쪽은 산이었다. 핸들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언덕을 넘어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내 차를 받았고, 나는 낭떠러지 행을 면할 수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앞 유리와 옆 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아슬아슬하게도 내 몸을 비켜나갔고, 상대방 차는 약간의 손상만 받은 반면 내 차는 목사발이 되었다. 만약 그 순간 그 차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부딪히는 각도가 조금만 어긋났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정신이 들면서 '주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깊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죽었다고 생각하자. 이미 죽은 내가 다시 살았는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나는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1994년 4월 2일 서초동에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또 한 가지 결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섬겼던 살롬 공동체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갈 무렵인지라 내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사실 교회 행정 체계상 두 개의 중심축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고 비전만으로 몰아 부쳐온 미성숙한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과 번민을 계속하기보다는 조용히 살롬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결단을 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6년 동안 나름대로 애정을 쏟았던 것도 그렇거니와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형제자매들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살롬 공동체의 소중한 경험이 교회 공동체 운동에 대한 보람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음,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할 만한 인격과 역량이 준비되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 같다. 그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났고 나는 모든 것을 쉽게 결단할 수 있었다.

이후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외의 여러 교회를 섬기며 설교 봉사와 전인 치유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대학 교수 생활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의사를 전해들은 선배 교수는 뜻밖에도 내게 부럽다고 하셨다. 그분은 평소에 나의 생활 모습에 불만을 표하셨던 분이였다. 특히 내가 선교 활동에 지나치게 열심인 점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 학기 중에 면역 요법을 연구하겠다고며 독일에 간 것과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몇 차례 제 3 세계에 나간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그분의 입에서 내 삶이 부럽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사실 나는 황 교수가 너무나 부러웠다네. 의과 대학이라는 특수 사회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네의 자유와 패기가 부럽다네."

물론 나 역시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어떻게 될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직 '주를 위해 내 생애를 극대화시키려는 목표'를 방해하는 것을 앉아서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다.

축복된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안정된 직장이나 직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계획을 망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의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서초동 시대

하나님의 결재

개원을 앞두고 나는 몇 군데 장소를 물색하다가 롯데월드 백화점 내에 집단 개원 형태로 있는 롯데월드 클리닉에 30 평 정도의 공간이 있음을 알고 사용 신청을 냈다. 이미 소아과 자리가 있던 곳인데 환자가 워낙 적어 정리하려던 차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자체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인데 막상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다. 이는 아랫사람의 전결사항이라 백화점 사장이 관여할 일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결재를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결재를 이루는 일이 사실상 거부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큰 실망이 되었다. 몇 달 동안 들인 공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이야. 중간 역할을 했던 그 클리닉의 원장님은 사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분을 지칭하면서 그분이 전화 한 통만 해 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귀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몇 달 동안 준비해오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이라면 사람에게 압력을 넣는다고 일이 될 것인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매달리는 것은 명백히 불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보았지만 그날로 그곳을 포기하고 개원을 준비하던 형제들을 보내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결과 서초동에 100 평 정도의 병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사랑의 클리닉의 서초동 시대가 문을 연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달랐다. 개원 초기부터 주님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규모의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사랑의 클리닉은 1994년 4월 2일에 개원을 했다. 개원 예배를 4 차례 드렸는데 오전에는 하용조 목사님(온누리 교회), 오후에는 이상규 간사님(CCC)과 김진홍 목사님(두레마을), 밤에는 장순호 선교사님(방글라데시)이 각각 예배를 인도해 주셨다.

참으로 감격적인 개원 예배가 아닐 수 없었다. 무일푼인 상태에서 신용 용자와 시설 리스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빌려 오직 믿음으로 개원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첨단 검진 시설을 갖추느라 무리를 했던 것이다. 병원 이름은 사랑의 클리닉, 영문으로는 Loving Care Clinic 인데 이 이름에 걸맞은 역량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였다. 사랑과 섬김, 치유 공동체, 선교 병원, 전인 치유 센터 등의 이름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었다. 원장인 나를 포함해 전문의가 3 명, 일반의가 2 명인 의료진에 맞지 않게 환자가 거의 없었다. 경험 부족이 초래한 무모한 출발의 결과는 처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다.

계속되는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팀워크에 문제가 많았으며 과다 인원과 배치의 부적절함, 누적되는 적자 등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상처가 많고 왜곡된 부분이 많은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

적자가 몇 백만 원 정도였으면 그냥 기도했을지 모른다. 한 달에 1~2 천만 원의 적자가 나면서 누적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루하루 유지되는 것이 기적이었다.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기도가 막히고 말았다. 그냥 주님의 처분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러다가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판이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수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이므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몸만 건강하면 마음도 영성도 회복이 쉽지만 몸이 병들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기도한다. "오, 주님. 몸만 건강하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시면 죽도록 당신의 영광을 위해 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반드시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해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환자라고 해봐야 하루에 십 여 명인데 나까지 환자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일 년쯤 지나서인가. 한 직원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당시 원장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가를 들으면서 앉아 계시다가 퇴근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 내 안에 만들어 내신 평강이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남떠러지 모험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을 절박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모험을 즐긴다. 모험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살아 계신 하나님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 즉 Cutting Edge(깎아내린 듯한 모서리, 절벽)에 직면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젊은이여! 작은 야망을 버리라." 이것은 인도 최초의 가톨릭 선교사인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했던 말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지금부터 200 여 년 전 인도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사자후를 발하던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다. 그리고 그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찌어다(사 54:2)

꿈임없이 이어지는 아침 예배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침 예배였다. 중간에 형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대체로 아침 예배 시간에는 찬양, 기도, 말씀 공부 또는 말씀 강해, 제자 훈련, 간증 등이 진행되었고 일주일에 한번은 말씀 공부 대신 경영 회의를 했다.

병원을 시작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아침 예배로 인해서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배는 몇 차례 있었던 파선의 위기를 면하고 현재는 순항 중에 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만큼 체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때도, 분위기가 침침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우리 편이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항상 총만할 수는 없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격할 때가 많았다. 아침 이슬처럼 촉촉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찬송의 은혜, 합심 기도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교수 시절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진료해 준 적이 있었다. 선교를 지향하는 병원이라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1 주일에 한 번이니 힘들 수밖에 없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쉬울 텐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렵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차라리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은혜는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지고 사랑은 확인하면 할수록 더 새롭고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천사들과의 삶, 그 행복에 겨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클리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했던 것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두 자매를 소개한다. K 자매를 처음 안 것은 아프리카에서였다. 당시 사랑의 봉사단 2기 동아프리카 팀 30여명 중에 소말리아 특공대 8명을 선발하는데 그녀는 과감하게 그곳에 지원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만나 한국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끈이 형성된 것이다.

사랑의 클리닉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던 1994년 4월, 축하객으로 왔던 내과 간호사 12년 경력의 그녀를 나는 사랑의 클리닉 간호사로 즉석 채용하였다. 처음에는 자원 봉사자로 한 달을 근무했고, 다음 달부터 정식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존재가 몰고 온 파장은 놀라웠다.

우선 그녀는 화를 낼 줄 몰랐다. 모든 사람의 다정한 친구였고 토라진 형제, 상처받은 자매를 감싸주고 다독거리는 데 선수였다. 한없이 부드러운 그녀는 여성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피력할 줄 알았다. 인사 관리에 경험이 없던 내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선발한 탓인지 유난히 분란이 잦았고 자중지란이 많았던 시절, 그 자매는 치유자로서의 인격적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적 하나됨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

그녀는 사람과 부딪치는 일이 없었다. 항상 하나님과만 부딪쳐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웃들로부터는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은근한 요청을 받았다. 사실 사람과 부딪치면 상처를 받으나 하나님과 부딪치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녀의 인격과 라이프스타일은 어쩌다 갈등의 대상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가까이 하였고 기 때문에 상대는 그녀의 사랑의 눈빛에 녹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K 자매가 눈이 벌겍게 충혈 되어 출근을 했다.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 왜 그리 잠을 안 자고 피곤한 채로 나오느냐고 나무라자 자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자매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지체들을 위해, 특히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던 것이다.

주님이 그 자매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은 이 병원의 장래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지금은 어느 선교사님의 부인이 되어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자매,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도 그림다.

하나님은 내게 J 자매도 보내주셨다. J 자매와 같이 보낸 지는 벌써 4년이 되어간다. 당시 대학 조교로 있다가 대학생을 위한 호도애 성경 캠프에 참석했던 자매가 나와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역사였다. 이후 사랑의 봉사단 2기에 참석한 것을 시발로 결국 사랑의 클리닉 직원으로 함께 동역 하게 되었다.

J 자매는 하는 일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맡아 책임을 다했다. 일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쏟는 정성과 섬김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사랑의 클리닉이 아름답게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도 상당 실장으로서 그녀의 섬김의 혼이 쏟아낸 열매가 아닌가 싶다. 그녀는 매사를 확고한 비전으로 다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자신의 주관에 관철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따뜻한 배려가 돋보였다. 섬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자매.

그런데 그녀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완벽주의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탓일까. 빨리 회복되어야 할 텐데 상황은 그럴지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나의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던 자매여서 그런지 어쩌지 나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 괴롭고도 슬프다.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 틈에서 나를 살게 하신다. 사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천사들이 주변에 많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형제자매들... 이 땅에서도 잠시 그 맛을 보며 행복에 겨워 산다.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내가 섬기는 선교 단체 중에 인터서브라는 이슬람,힌두권 선교회가 있다. 거기서 만난 손희영 이사(당시 연대의대 내과 교수)와 절친하게 지낸 덕분에 매주 연세대 토레이 채플에서 모이는 연세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선교사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교회나 선교 단체는 모이기가 쉬울 수 있지만 기도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모임을 계속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중보기도 모임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사랑의 봉사단에 적합하게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끔 사역 보고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많게는 50 명, 적게는 20 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깊은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임과 대화,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은 코이노니아는 세상의 친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최소한 이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을 비전과 뜻이 같은 사람으로 분류한다.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와 배경은 더욱 중요하다. 기도라는 최소 공배수로 모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나는 기도하는 젊은이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중보기도 모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로운 사역의 지평 - 전인 치유 학교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건강 세미나를 하다보니 내 스스로도 못 지킬 일을 강력히 권고하는 일이 많았다. 식생활이나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세미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나는 '죽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강의를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수용을 하는 문제가 스트레스였다. '아! 그렇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문제로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건강 문제의 핵심인 스트레스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양의 원인도 대부분 정신적 고통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하며,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식생활이나 흡연) 등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사소한 원인에 불과하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런던 암 센터에 입원한 2 백 50 명의 암환자 중 암이 발생하기 전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환자는 19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신지체인 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암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리 없다. 미치고 싶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내적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K 라는 환자는 내가 대학 시절 꿈과 열정을 쏟았던 한 선교 단체의 후배이다. 갓 서른이 넘은 가정주부로서 두 아이의 어머니였으며 현직 판사의 아내였고, 훌륭한 부모님에 화목한 가정, 남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이었다. 그 자매는 대학 시절부터 훈련도 많이 받아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매였다.

그런 그녀가 불행히도 위암 환자로 내 앞에 나타났다.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대에 누워 있는 도중 피를 토했다고 한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으로 판명되었고, 그녀는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 이제는 살았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모교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에게 위암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셈이다. 결국 위암은 그녀에게 ‘아! 이제는 학위 논문을 안 써도 되는구나’라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스트레스로 꼭 찬 이 시대를 증명이나 하듯….

현대인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과중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시에 무너뜨린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기본 전제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겠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과욕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빼앗는다. 나의 탐욕과 일 욕심은 스스로 불행해지려는 몸부림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대 사회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마음의 병은 깊어져 간다. 이 병을 치유하는 비결은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나를 얽어매는 모든 구조를 직시하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생활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길러라. 그리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라.

전인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정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건강의 문제는 바로 인격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건강 문제의 근원은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격의 왜곡된 반응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인격이 치유되지 않고는 바른 반응이 불가능하며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인격의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전인 치유 학교(School of Healing Ministry)이다. 처음에는 햇불회관을 빌려서 한 달에 1 회, 8 시간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교회를 빌려서 12 주 코스로 60 시간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15 기 훈련생들을 모집 중에 있다.

이 시대는 상처의 시대이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와 헌금을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격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 없이 방황하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다. 돌 같은 상처와 한 맺힌 것, 쓴 뿌리, 지적 왜곡, 영적 무지, 관계의 파괴 등이 뒤얽혀 있는 인격 속에 은혜가 녹아들어갈 리 없다. 현대 사회는 죄의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의한 인격적 왜곡을 치유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Preaching)와 제자 양육(Teaching)과 치유 사역(Healing)을 균형 있게 하셨다. 그리고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치유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나는 정인 치유를 목적으로 집회를 할 때마다 어두움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 인해 병들었던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그들이 말씀의 권능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격을 맛본다.

이제는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적인 문제를 조용하게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부 관계,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전인격적으로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돌이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전인 치유 학교에서는 바른 영성, 정서적 치유, 지적 치유, 신체적 치유, 대인 관계의 치유, 사회 문화적 치유, 경제적 치유, 가정의 회복(부부 치유, 자녀 교육), 교회 회복, 월드 비전 등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요청받는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는 8시간짜리 정규 세미나 4회를 비롯하여 60시간의 정규 학교 4회와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백여 차례 이상 치유 집회를 가졌고 해외에서는 인도 선교사 대회(2박 3일), 네팔 선교사 수양회(3박 4일), 방글라데시 선교사 수련회(2박 3일), 모스크바 선교사 세미나, 우크라이나 선교사 세미나, 케냐 선교사 세미나 등 선교사들을 성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한번은 세미나가 끝난 후 1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한 베테랑 선교사님이 이런 권면을 해주셨다. "황 박사님. 선교사님들의 치유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다른 사역도 바쁘시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으면 합니다."

전인 치유 학교는 해외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도 사역하고 있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지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다. 정기적으로 지도자반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인 치유 학교의 지부를 요청하는 지역만 해도 미국, 중국, 프랑스,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양하다.

환자를 보며 병원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시간을 내서 해외 집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의 상처와 인격적 왜곡은 국내에서도 심각하지만 해외 한인교회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그들의 절박한 열망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다.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는 언제나 크고도 놀라웠다. 오히려 집회를 할 때마다 가정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 사람은 내 자신이었고 경이로운 인도하심에 감탄을 거듭하곤 한다.